
제32회 KISTEP 수요포럼 주요 내용

2015. 10. 12

1. 개 요

☐ 목 적

- 우리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대학 교육구조 개혁 방안 토론

☐ 일 시 : 2015년 10월 7일(수) 10:30~12:00

☐ 장 소 :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층 국제회의실

☐ 주 제 : 「바람직한 대학 교육구조 개혁 방안 모색」

☐ 프로그램

시간	내용	비고
10:30~10:35	개회사	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
10:35~10:40	발표자 및 패널 소개	(사회)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조정본부장
10:40~11:20 (40분)	주제 발표	하연섭 서울대학교 교수
11:20~11:40 (20분)	지정 토론	(좌장)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(패널) 김범열 LG 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신현석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유현숙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
11:40~12:00 (20분)	자유 토론	참석자 전원
12:00	폐회	(사회)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조정본부장

2. 주제 발표 주요 내용

□ 우리 사회 내 인구절벽의 문제

-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지만, 그 직접적인 영향은 학령인구 감소로 나타나고 있음

※ 20년 전인 1995년과 비교할 때 초등학생은 약 120만 명, 중학생은 약 76만 명, 그리고 고등학생은 약 33만 명이 감소함

-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수의 감소와 대학 진학률 감소가 겹쳐지게 되면, 대학입학자원 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상당수 대학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사태가 올 것으로 예상됨

□ 교육의 작동 원리 변화 필요

- 우리 사회는 해방 이후 팽창하는 인구와 성장하는 경제에 익숙해져 있었고, 교육시스템 또한 인구와 경제의 성장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가운데 설계되어 있었음

- 그러나 팽창 지향의 교육체제로부터 감축 관리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고등교육단계에서는 재정지원 방식 또한 변화가 필요함

- 향후 대학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

- 고등교육 재정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,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부실대학의 연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함
- 고등교육체제의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해야 함

□ 대학교육의 내용과 대학원 개혁 필요

-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구조개혁과 더불어, 대학교육의 내용에 대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함
 -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로 하위대학들이 타격을 받을 경우 이들의 교원을 배출하던 상위권 대학의 대학원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임
 - 대학구조개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학의 교수진은 대부분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, 우리나라 대학원이 받을 충격은 매우 클 것임
 -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대학원 시스템의 붕괴는 우리 대학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음
 - 21세기 지식기반경제를 끌고 갈 창의력을 갖춘 고급인재를 우리 대학들이 스스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교육의 혁신과 함께 소수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

□ 대학교육의 사회적 부응도 향상 필요

- 산업 현장에 직접 응용 가능한 지식의 창출과 인재 육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대학교육은 여전히 공급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
 -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학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학생 시각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
 - 나아가 졸업생의 전반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산업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과감한 정원조정까지도 고려해야 함

○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의 개편이 필요함

-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, 여전히 공급자 위주 시각에서 진행되는 문제를 드러냄
- 대학교육의 기본 방향이 잠재력(potential)의 충분한 발현과 지속가능성(sustainability) 강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

□ 대학 간 역할분담 명확화

○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들 간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함

- 교수요원의 상당수를 외국 대학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면서도,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부분 연구중심대학을 표방
- 많은 대학에서 교수들에 대한 평가가 연구 성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임
- 산업수요에 대응해서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중심대학들을 더욱 과감하게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해서는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간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함
- 정부의 재정지원도 대학 간 역할 분담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함

□ 국가 재정지원 사업 개편 방향

○ 전체 재정지원 사업 구성을 단순화 하여야 함

- 사업 내용 및 지원 대상에 있어서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재정지원 사업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
- 재정지원 사업 구성의 단순화를 위해서는 고등교육 예산의 총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
- 사업 구성의 단순화는 고등교육분야에서 배분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임

○ 국가 재정지원 사업 내용을 단순화 하여야 함

- 재정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대상(targeting)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
- 현재 고등교육 예산을 보면 하나의 재정지원 사업에 연구, 인력 개발, 지역균형 등 모든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
- 그러나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성과관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

○ 정책유도 지표를 최소화 하여야 함

- 이명박 정부에서 그 이전 정부에서 시행했던 사업단 지원 사업을 이른바 포물러 펀딩으로 통합한 이유는 재정지원에 있어서 관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음
- 이러한 배경 하에 도입된 포물러 펀딩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사업단 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이전 정부에서 포물러 펀딩을 무색케 하는 각종 정책지표가 평가지표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임

- 대학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물러 펀딩 보다는 사업단지원이 적절하나 이 경우에도 정책지표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
-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범위를 전체 대학의 50% 이내로 제한하면서, 이 범위에 포함되는 대학에 정원감축, 등록금 동결 등을 요구하는 것은 대학구조개혁의 대상이 되는 대학들을 오히려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함
- 정원감축이 실제 이루어져야 할 대학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의 정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였음

○ 중복 지원을 최소화 하여야 함

- 특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비교우위에 입각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중복지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
- 특히,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중심사업, 교육중심사업, 산학협력중심사업으로 분명한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음
- 이러한 원칙하에 현재 단계에서는 동일 학사단위에서 BK21-PLUS와 CK 사업을 지원 받는 경우, 각 사업의 사업비를 동일한 목적이나 사용처에 집행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음
- 중장기적인 과제로서, BK21-PLUS와 CK 사업의 후속 사업 기획단계에서 연구중심사업과 교육중심사업의 중복 수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

3. 패널토론 주요 내용

【 김범열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】

□ 현 대학 교육의 문제

- 유사한 커리큘럼과 교수 방법 활용 등 학교별 차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않고 있음
- 창의적 교육 실행에 있어서의 비용 문제, 실행 효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
- 학벌, 학점 등 인재의 외형만을 중시하는 문제 발생

□ 기업이 원하는 인재의 모습과 현실

- 기업은 자기주도성 · 도전정신, 향상심을 고루 갖춘 인재 필요
- 젊은 인재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하지만 기업, 사회가 원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의문 발생
- 기업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 부족

□ 기업 및 대학의 공동 노력 필요

- 기업이 다양한 인재 선발 방안을 제시하면, 대학이 창의적인 교육을 시도하게 되고, 개인 또한 역량 개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
- 대학은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

(Problem Solving) 역량을 배양시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함

- 대학이 먼저 틀을 깨고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 필요

【 신현석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】

□ 대학구조개혁과 국가 대학재정지원사업 간의 관계

- 국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대학구조개혁을 촉구하는 사업으로 볼 것인지, 대학 특성화를 지원하여 대학 스스로의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임
- 바람직한 대학구조 개혁 방안에 대한 해답은 구조개혁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
- 현 정부에서 취한 대학구조개혁 방식은 정부주도의 일제평가를 통해 결과에 따라 구조개혁(정원감축)의 분량을 차등적으로 배분 하는 하향식 방법으로, 대학의 역량을 총량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부분적이고 제한적임
- 대학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여건을 최소한 인정한 상태에서 그룹 특성에 부합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그룹별로 평가하는 맞춤형 평가를 도입하여 대학의 유형별 특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

【 유현숙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】

□ 대학원 개혁 방향

- 연구중심대학 육성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과제이나 아직까지 원론적인 제안만 논의되는 상황임
- 연구중심대학 운영 기준설정과 더불어, 학부 학생 규모의 과감한 감축, 연구역량 증진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의 획기적 개선, 대학원 평가 체계 개선 등이 요구됨

□ 고등교육 재정지원 개선 방안 검토

-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중복투자를 막고 개인 및 기관 단위의 재정 지원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야 함
- 특정 사업에 대한 적합한 성과평가 모델을 개발하고, 사업계획 단계부터 평가를 위한 비용을 설정하는 등 재정지원사업 성과평가의 정교함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

□ 고령화 사회에 부합하는 다품종 고등교육 체제 마련

- 현직연수, 전직, 인생이모작 등 다양한 개인별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다품종 지원체제로 고등교육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함